

서정과 고발의 미학

-이범선의 작품 세계-

배 경 열*

차 례

- | | |
|---------------------------|-----------------------|
| I. 이범선의 작품 경향 | III. 사회 고발적인 작품 「오발탄」 |
| II. 서정적인 형식의 작품 「학마을 사람들」 | IV. 결론 |

I. 이범선의 작품 경향

이범선 소설의 경향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소설 미학을 바탕으로 존재론적인 삶의 양식을 조명하는 서정적인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앞세운 사회 고발적인 것이다. 전자에는 「학마을 사람들」이 있으며, 「오발탄」은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작품에서 스케치의 감동을 보여주었다면, 후자의 작품을 통하여 작가는 사실화의 연숙성을 보여준다. 앞의 작품이 전원에 묻힌 생활이라면, 뒤의 것들에서 작가는 사회의 갖가지 모순과 비극을 저항적으로 드러낸다.

이범선의 문학은 우선 서민적인 인정미를 풍기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그의 주인공들은 대개 도시의 서민이거나 셀러리맨이다. 그들은 항상 사회라는 큰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광주여자대학교 강사

당치에 눌러 살면서도 인정이 남아 있고 애수가 있다. 작가는 이들 서민의 애환을 리얼하게 묘사하여 독자앞에 펼쳐보인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는 감상적인 서정성이 나타나며, 그의 서정성은 다분히 패랭이나 찔레꽃 같은 가련미를 띠고 있다. 그리고 그가 천작하는 개인의 삶은 이론이 정연한, 잘 나고 말발 있는 지식인의 삶이 아니고, 순박하고 선량한 그래서 나약해 보이고, '바보'같은 삶이다. 천승준은 이러한 이범선의 작품 세계를 '서민성의 미학'으로 집약한 바 있다.

전 작품을 일관하여 그의 작품 무대는 한결같이 大路라기보다는 小路이고, 빌딩이라기보다는 조촐한 가옥이며, 메카니즘의 집결지이라기보다는 그 외곽 지대라는 서민 생활의 本據地였던 것처럼, 그가 선택하고 正視한 주인공들 역시 순하고 욕심없는 순수 서민이다. 변형되었거나 전향된 것이 아닌, 애초에 그렇게 살아 왔고 또 그런 데로 살아가려고 하는 숙명적인 庶民群, 그래서 李範宣의 문학에는 어떤 選民意識이라든가 귀족 취미라든가 감성의 질은 콤플렉스 같은 것은 아예 인연이 없는 것으로 除外되어 있다.¹⁾

이범선 작품에 나타난 서정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작가 자신의 고백을 그의 처녀 창작집 「학마을 사람들」 후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살아가노라면 마음의 창유리에 먼지가 끼고 또 얼룩이 진다. 나는 거기 여러 가지 모양의 얼룩을 본다. 가다가 한 번씩 이 마음의 창유리를 석유 램프처럼 닦아 본다. 이렇게 호오 입김을 불어 가만히 지워 버리는 마음의 얼룩들, 이것이 지금까지 나의 작품이었다.²⁾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범선은 그의 작품을 '마음의 얼룩', 혹은 '안경알에 묻은 얼룩' 등으로 즐겨 표현하고 있다. 그의 '안경알에 묻은 얼룩과 먼지'들은 순박한 서정성으로 포장되어 「학마을 사람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장미보다는 잔잔하면서 온온한 향기와 아슬프레한 그림자로 나타난 그의 서정성에서 이범선 나름의 감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성이 감상(感傷)적인 서정성과 조화를 이루어 「학마을 사람들」에서 세련되게 표현된다.

1) 천승준, <서민의 문학>, 문학사상, 82. 4, p.185.

2) 이범선, <학마을 사람들 후기> (오리문화사, 1958)

또한 이와 같은 서정성이나 감상주의(感傷主義)가 직접적인 호소력 이상의 충격을 주는 것은 현실에 대해 맞붙어 싸우지 않고 오직 충실하게 인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인간성의 옹호에 바탕을 두고 문학작품을 창조해 간다.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인간성 옹호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나 저항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상황으로 인하여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려는 것이다. 「오발탄」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 생활을 비극화시키는 현실에 대하여 비판과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한 셸러리맨의 가정 비극을 그리는 중에 부조리한 시대에 대한 비판을 피하면서 ‘인간은 신의 오발탄인가’라고 외치며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작품에서 비참한 사회의 한 단면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의 몸짓은 진정 어떠한 것이며, 인간이 지닌 양심의 궁극적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Ⅱ. 서정적인 형식의 작품 「학마을 사람들」

이범선의 작품 속에는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동경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더욱 그의 작품의 매수를 더해 준다. 이것은 그가 월남작가이며 실향민이기 때문에 고향과 삶에 대한 진한 애착이 만들어내는 서정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범선이 집요하게 삶의 문제를 소설의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복잡한 생존 경쟁의 도가니 속에서 서달리는 도시 생활의 목가적 인간친화가 있었던 옛 고향에의 향수에 기인한다.³⁾

이보영의 지적대로 망향의 정에서 비롯된 그의 서정성은 그의 작품 속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적 취향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그가 역사적 논리로 삶의 상

3) 이보영, <이범선론>, 「평론선집Ⅱ」 (삼성출판사, 1981), p.361.

황을 창작화하려는 것보다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단절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인생은 한없는 물길과 같다. 그 물길에서 삶의 여러 모습을 대하고 삶의 진실을 잡아 그 초점의 선명도를 서정적으로 잡는다.

그는 서정시인이 인생의 정을 접하는 것처럼 산문의 형식에도 삶에 대한 시적 감동을 구현하려고 한다. 삶의 상황을 냉엄하게 관찰하고 무수한 소재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의도적으로 창작하려 하기보다는 삶의 진실을 향한 그의 정이 그의 의식을 사로잡는다. 그러기에 이범선의 작품이 보여주는 서정성의 중요성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비평가들이 그의 리얼리즘적인 일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서정주의적인 측면이 동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범선의 산문 창작을 필연적으로 이끌어주는 동력은 오히려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서정주의임을 그의 작품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에게 서정주의는 창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內力이다. 물리학에서 內力이라 할대 外力의 작용을 전제하는 것처럼 이범선의 外力은 리얼리즘에 속한다. 이러한 內力과 外力이 相合되어 있으면서도 內力인 원형은 外力인 삶의 상황에 저항한다. 그 서정적인 것을 지키려는 이범선의 의지가 창작의 윤리관으로 나타난다. 작가에게 있어 윤리관은 그의 도덕 관념이 아니라 창작 정신을 뜻하게 된다. 창작 정신은 작가의 인생관을 구현하려는 어떤 사상적 배경이 아니라 <왜 창작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이며 해명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은 작품을 존재시키는 내면동기의 근원이 된다. 그러한 근원에서 작가는 인생의 수많은 소재를 놓고 그가 추구하는 작품에 알맞는 것들을 선별하여 창작하게 된다. 이러한 작가의 창작 정신은 개성을 드러나게 하고 상상력을 발동시켜 준다. 그리하여 창작정신은 작품의 뿌리를 이루게 된다.⁴⁾

이범선은 월남작가임으로 고향과 그 고향에서의 보다 인간적이었던 삶에 대한 애착이 그의 서정주의를 불러 왔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애착을 좌절시키는 삶의 상황이 리얼리즘을 불러 왔다. 따라서 이범선의 소설은 담담한 필체로 이끌어 가면서 원형의 서정주의와 상황의 리얼리즘에 젖어들게 한다.

4) 윤재근, <원형과 사상의 모순을>, 현대문학, 1979. 12, p.276.

그의 서정주의는 서글프면서도 끈질긴 삶의 정을 우려내고, 그의 리얼리즘은 비정한 삶의 현장을 드러내어 주장하려는 것보다 말소리의 속뜻을 함축적으로 응결시켜 놓는다. 그러기에 이범선의 작품세계는 하나의 사상과 의식의 세계이기보다는 감성과 인정의 순박한 질량으로 배꾸어져 있다. 그는 개인과 개인과의 단절을 진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끈은 고상한 지식이나 위대한 사상, 강력한 정부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소박한 인정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심각한 텃취로 무겁게 깔아 놓는 것이 아니라, 낭만성 있는 무우드로 칠해 놓는 수법이 있다. 이런 낭만성은 그에게 타고난 체질같은 것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풍부하게 하는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이 '서정적인 표현이나 세계'는 <당위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그의 사상을 쓴 약처럼 불쑥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낭만성'이라는 달콤한 껍질로 감추어 마치 당위정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 세계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이든 세태적이든 고발적이든 그 밑바탕에는 서정성이 깔려 있다. 그가 창조해 내는 인물들은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도전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고, 애뜻한 정을 우려낸다.

김동리는 이범선의 처녀 창작집 「학마을 사람들」에 붙임이라는 글에서 그의 문학세계를 “작품을 통해서 보는 이범선은 깨끗하고 고고하고 소극적인 인물이다. 그러한 씨의 성격과 생활이 청정하고 침착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다. 화려하고 끈기 있고 역세기보다는 호젓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학이다”고 평가했으며, 그의 문학적 본질은 어디까지나 자아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⁵⁾ 이범선 문학에서 사회나 현실이란 것이 언급되어도 그것은 자아를 드러내는 배경으로서 존재할 뿐이고, 씨의 작가적 기질은 다분히 서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학마을 사람들」(「현대문학」 1957.1)은 6·25의 비극적 체현에 대한 이범선의 역사 의식을 ‘학마을’이라는 상징 공간과 ‘그곳 사람들’의 삶을 형상화해 보인, 뛰어난 미학적 구조를 갖춘 작품이다. 이 작품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5) 김동리, <「학마을 사람들」에 붙임>, 「학마을 사람들」(오리문화사, 1958), p.1.

세 개의 상징적 기둥은 ‘학’과 ‘학마을’과 그곳 ‘사람들’이다.

학마을.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었노⁶⁾

작가의 근원적인 향수의 대상인 학마을은 조상의 영(靈)이 지배한 마을이며, 장생 불사의 학처럼 무시간적 낙원이다. ‘학마을’이란 삶의 터전에서, ‘학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불굴의 정신을 뿌리내리려는 수호의 상징이다. 즉 소중한 전통가치의 보존을 뜻하며, 근본적인 인간애에 해당한다. 여기서 ‘학’은 곧 하늘이며, 그것은 정확하게 인간의 행·불행과 일치하고 있다. 바꾸어 표현하면 자연과 역사의 합일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기에 학은 단순한 상징의 역할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격화된 등가물로서 작중 인물들과 그 정신적 지향성을 사로잡고 있다. 학을 신성시하는 그들의 태도나 영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등은, 학마을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전통적인 샤머니즘적 세계관의 바탕 위에서 서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학은 그들의 전통적 가치체계 곧 세계관의 표상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전통적인 동양의 세계관, 인간과 자연의 본래적인 일체, 인간과 자연의 행, 불행이 相入相即 하고 서로 예시해주는 관계다.

학의 도래는 마을의 행복을 예언해 주며 학의 새끼의 수는 마을의 凶豊과 함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물 혹은 사물의 속성을 빌어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감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바로 「학마을 사람들」의 구성상의 탁월한 기량이라고 생각된다.

이 학마을의 신화적 평화의 깨어짐은 36년 동안 학이 날아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귀절 속에 충분히 함축되어 있으며, 6·25의 살육과 평화가 깨어지는 비극 역시 학의 죽음, 학에 대한 바우의 가학적 충격 행위, 학의 날아감을 통해 환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나무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듯이 학 역시 생명을 바탕으로 자라는 자유 정신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범선이 매사에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바우를 단순히 유물사관의 하수인으로 그리

6) 이범선, 「이범선 대표중·단편선집」(책세상, 1994), p.30.

지 않는데서도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 실연의 상처를 입은 자로 그림으로써 우리가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케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바우가 학을 쏘아 죽이고 학이 서식하는 학나무를 지성의 상징인 박훈장과 함께 죽이는 것은 마을의 수난을 의미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학이 날아와 앓을 생명의 나무를 키우려는 노력은 역사의 재건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마을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걸어온 수난의 역사에 대한 신화라 할 수 있다. 즉, 역사 속에 살아있는 민족과 인간의 원형을 학을 통해 상징화 되었다고 하겠다. 학나무와 학이 근원적인 생명터와 생명을 상징하듯이, 역사의 수난이란 곧 인간이 생명의 근원적인 자유와 평화의 갈구와 누림을 구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마을의 신화적 존재로 등장하는 학은 민족의 운명을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신이 숨어버린 계기는 한일합방과 일제말기 그리고 동족상잔의 6·25로 한국근대사의 중요 고비와 대응되며, 신이 숨어버린 시대는 바로 역사성 자체에서 연유되는 것이라고 할 때 「학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전설을 빌어서 역사적 사건을 조명해 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의 신성한 것인 신앙을 파괴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응하는 고난사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학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 순응은 어떠한 박해와 절곡에서도 살아 있으며, 살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인의 생명과 삶에 대한 강한 집착을 서정적으로 체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선량한 학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면서 사건의 전개를 일제와 6·25동란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고 있는 것은 그들 역시 역사적 사건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평온하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치적 요소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생존 본능과 이를 파괴하려는 역사적 사건들은 대립구조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작가는 그 비애를 구태여 어떤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호소하려 하지 않는다. 오직 폐허 위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려는 삶에의 인간적 애착을 보이고, 다시 그로부터 인정으로 꽃피어야 할 인간적 애정을 심연에서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인간애는 마치 戰地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같은 의미를 부여해 준다.

백승철은 이 작품을 한 폭의 수묵화에 비유하고 있다. 그것은 작품 속에

보이는 배경 묘사가 매우 서정적이며, 섬세한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자동차 길엔 가재도 오르는데 십 리 내리는데 십 리라는 영(韻)을 구름을
뚫고 넘어, 또 그 밑의 골짜기를 삼십 리나 더듬어 나가는 마을이었다.⁷⁾

도회지와 멀리 차단된 산촌을 배경으로 선택한 것은 전원적이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 장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서술의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디테일의 대담한 생략과 사건의 비약적인 전개가 바로 그것이다. 서정성이 넘쳐 흐르는 정황을 묘사할 경우에도 작가는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그친다.

“다음 해 봄에도 학이 돌아왔다” 라고 대전제를 해 놓고 “세 마리 새끼를 쳤다”고 바로 결론을 맺음으로써 무한한 함축을 내포시키고 불필요한 잔재가 없이 곧장 선율로 흘러내리게 한다. 그리고 그의 간결한 문체는 언어의 절제를 통해 감정의 절제까지도 유발시킴으로써 깔끔하고 산뜻한 서정성을 부각시켜 준다. 그리하여 자칫 빠져 버리기 쉬운 감상주의가 극복되고 산만해지기 쉬운 이야기가 하나의 줄거리로 압축된다.

「학마을 사람들」은 특이한 연대기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대기적 소설은 시간이나 공간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대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이 여러 체험을 통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개 규모가 크다. 그렇지만 「학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연대기적 소설과는 달리 묘사의 기법과 소도구의 활용이 압축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마을 사람들」은 민족의 근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의 현상들과 방대한 시간을 짧은 지면에 이루고 있음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무더기 무더기 핀 진달래꽃이 분홍 무늬를 넣은 푸른 산들이 사면을 둘러싼 가운데 소복이 일곱집이 이 마을의 전부였다. 영마루에서 내려다보면 꼭 새둥우리 같았다. 다음 한가운데는 한 그루 늙은 소나무가 있고 그 소나무를 받들어 모시듯 물레에는 집집마다 울안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있었

7) 이범선, 전거서, p.29.

다. 때때로 목청을 돋우어 길게 우는 낯닭의 소리를 받아 우뚝가 버드나무 밑에서 애들이 부는 버들피리 소리가 피리피리 쫄쫄리 아득히 영마루에까지 아저랭이를 타고 피어올랐다.⁸⁾

꼬기오.

또 한 번 마을에서 닭이 울었다. 다음은 고요하다. 졸리도록 따스한 봄 햇빛이 흰 무명주의 등에 간지러웠다. 이장 영감은 갓끈과 함께 흰 수염을 한 번 길게 쓸어 내렸다.⁹⁾

『학마을 사람들』의 일절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범선이 얼마나 섬세한 감각과 감상주의(感傷主義)의 정황 스케치에 저력이 있는가 알 수 있다. 그가 산문으로써 시를 쓴다는 것은 소재의 참신성이라든가 언어 구사에 있어 특수한 언어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점에 있지 않고, 스토리 전개에 있어 전반적으로 호소해 오는 문장 전체의 유기적인 울동과 색채에 있다. 반드시 그의 문장은 어떤 장면의 묘사으로써 무우드를 조성한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읽고 나면 시원하고 아련한 정서에 감싸이게 된다. 격렬한 드라마나 서슬 푸른 테마마 같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축축하게 독자의 가슴을 적셔주는 시적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작중 현실 그 자체가 제기하는 문제보다도 그것이 빚어내는 분위기를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매력이요 특색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통적인 산문 소설이라기보다 더 낱이 서정시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범선의 작품에서는 과거 사실에 대한 회상적 서술이 많다. 문학의 양식 상에서 서정적인 양식은 주로 회상의 시간을 통하여 전개되며¹⁰⁾ 회상의 시간 구조는 낭만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범선 소설에는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며, 갈등 관계를 수반하는 서사 문학의 인물과는 달리 화해와 낭만, 꿈을 지향하는 소극적 인물이 등장한다. 그리고 인물들의 빈번한 과거의 회상은 현실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적절한 수법이 될 수 있다. 그는 회상 수법으로 처리된 과거의 이야기를 세련된 묘사를 통해 현재에서 과거로 독자를

8) 이범선, 전계서, p.20.

9) 이범선, 전계서, p.30.

10) Emil, Steiger, *Grundbegriffe der Poetik*, 이유영, 오현일 역(삼중당, 1987), p.88.

이끌어 간다.

학다을, 얼마나 아름답고 포근한 마을이었노. 이장 영감은 어느 새 황소 같은 더벅머리 총각으로 돌아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롯불을 돌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¹¹⁾

소설에서 행동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그 결합 형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병렬'이고 또 하나는 '삽입'이다. '병렬'은 둘 이상의 행동이 평행으로 서로 진행되면서 얹혀 있는 형식이다. 이 때 행동들은 중요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구별은 있으나, 각각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진행된다. 이에 비해 삽입은 한 행동에 다른 행동이 끼어들어가 종속되는 형식이다. 병렬의 경우는 흔히 주행동과 부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은 병렬의 형식을 띄우고 있지만, 이것을 회상수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역쇠 영감과 탄실이의 이야기는 역쇠 영감의 손자 덕이와 봉네의 이야기와 대응된다. 그리고 덕이와 봉네의 결혼은 박훈장의 손자 바우가 가출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역쇠 영감의 이야기에 바우의 이야기가 대응되고 있는 것은 ①모든 위대한 역사와 이데올로기적 사건도 그 속에 인간의 희노애락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인간적, 개인적 역사관을 의미하고, ②전쟁이 바우의 출현으로 시작되고 전통적 민족관이자 보다 바람직한 인간관인 화해와 용서와 인내가 아닌 원한과 복수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작가의 북 이데올로기를 보는 작가의 관점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학나무 밑에 아주 어린 학의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길에 사로잡힌다. “별안간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온통 갈라지는 듯 밤낮 이틀이나 온세상을 드르륵 드르륵 흔드는” 6·25전쟁이 터지고 바우는 인민위원장으로 이 마을에 되돌아 온다. 바우는 이 마을의 통치자가 되어 횡포를 부린다. 산골 마을에도 전쟁의 거센 물결이 밀어닥친 것이다. 작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상황도 서정적 묘사를 통해 담담하게 관조하고 있다. 울분을 느끼거나 고발을 위해 흥

11) 이범선, 전계서, p.30.

분하지 않는다. 이범선의 서정성은 전쟁이라는 상황도 아름다운 서정으로 용해시키는 데 그 특이성이 있다. 그의 서정성은 그만큼 강렬하며 특징적이다. 간결하며 속도감을 지닌 서술과 소묘적인 상황묘사는 이범선의 서정성을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감상적 서정성은 의식적으로 표현되거나 호소되지 않고 스토리 자체를 한 폭의 수채화처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청아한 계곡의 유수처럼 자연스레 넘쳐 흐르는 서정인 것이다.

Ⅲ. 사회 고발적인 작품 「오발탄」

「오발탄」(『현대문학』 1959.10)은 전후 사회가 겪고 있던 리얼한 사회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중되는 생활의 압력에 의한 자포자기적 상태의 하층민들, 누구나가 겪고 있던 사회 부정에 대한 반감을 가장 직설적인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50년대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강한 목소리의 작품이 나오는 것은 받은 상처가 깊은 만큼 그것을 객관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발탄」은 소설의 기법면에서도 단편 소설로서의 성공을 보여준다. 집약적인 상황과 분위기 묘사, 상징적 수법, 평면적이고 개성적인 인물의 설정,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일상적인 주제의식, 회상적 이미지 접근 방식 등 소설적 효과가 크게 배려되었다. 게다가 이 소설은 연이어 발생하는 불행한 사건들이 거의 모두 필연적인 발생동기를 갖고 있고, 문체 또한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을 서술하기에 적합한 건조하고 직설적인 어조여서 비극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발탄」은 전쟁 자체보다도 전후의 암담했던 사회상을 그 나름대로 압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음미할 수 있다. 분명 그것은 '신의 오발탄'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오발탄'으로서의 전쟁의 의미를 절감하게 한다. 때문에 이 작품에는 숨막히는 생활고에 둘러쌓여 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여 전쟁으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들의 정신적인 황폐와 물질적인 빈궁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좌절감과 패배의식이 만연하고 이기적인 행위가 하나의 상식이 되었

던 1950년대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오발탄』의 송철호 가족은 전쟁후의 한국 현실을 그대로 축약해 놓은 현장이라 할 만큼 비참하다. 외면하고 싶은 충동을 줄 만큼 저참한 구성을 갖고 있다. 전쟁 때문에 정신 이상에 걸린 그의 어머니는, 휴전선 때문에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는 사정을 아들로부터 수없이 듣고도 북쪽에 두고 온 고향을 잊지 못해 계속 ‘가자’를 외쳐댄다. 군에서 제대한 지 2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남동생 영호는 ‘성실하게 살려고 해 봤자 그러는 자만이 손해’라 생각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끝내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인다. 여동생 명숙이는 양공주가 되어 여성으로서의 최악의 삶을 꾸려 간다. 한편 그의 아내는 일류 대학 음악과 출신이지만, 만삭의 몸으로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해산 도중 목숨을 잃는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극도로 피폐해진 삶의 모습으로, 주인공 송철호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오발탄’의 신세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한 지붕 아래 모여 살면서 제각기 다른 류(類)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과 허덕임에 줄리면서도 그대로 어쩔 수없이 인간 대열에서 떠밀려 가며 생존함으로써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상징들이 그가 바라보고 겪었던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당시 작가가 이 작품을 쓰게된 동기는 ①당시 사회는 우울하고 암담하였다는 점, ②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었다는 점, ③인간 상실의 시대라는 점, ④목적도 없이 흘러가는 삶의 대열일 뿐이라는 점이다.

그러기에 『오발탄』은 전쟁이 후방 국민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빈곤을 가져오고 또한 절망을 가져왔는지를 절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6·25라는 비극이 스쳐간 암담한 사회상을 빈틈없이 요약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빚어지는 암담한 분위기는 그대로 암담한 사회의 속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핵심은 비참한 사회의 한 단면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의 몸짓은 진정 어떠한 것이며 양심의 방향과 그 소재는 어디인가 하는 점을 날카롭게 묻고 있다.

「오발탄」에서는 생활이라는 양심을 버리지 못하는 송철호와 양심과 윤리를 버리고 세속적인 삶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영호, 또 <가자!>라는 탄식을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한 노파의 부르짖음을 통해 인간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삶의 한계와 사회의 모순을 적시할 수 있다.

철호는 비참하고 불행한 상황 속에서 남들처럼 어엿하게 식구들을 거느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실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 거기에 그의 갈등이 있는 것이다.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궁극적 이유는 남들에게 없는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철호는 무수한 일상인들이 전작 내뿜개친 자의식의 고뇌를 자청하여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피>로 느꼈던 잉크는 <생활의 상처>로 볼 수 있다. 즉 양심의 갈등이 빚어낸 자의식의 내출혈의 상징적 표상이라고 추측된다.

바게쓰의 물을 대야에 따랐다. 두 손을 끝에서부터 가만히 물 속에 담갔다. 아직 이른 봄이라 몸이 꽤 손끝에 시렸다. 철호는 물 속에 잠긴 두 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펜대에 시달린 오른손 장지 컷 마디에 쿵알만한 못이 박혔다. 그 못에서 파란 명주실 같은 것이 사르르 물 속으로 풀려났다. 잉크. 그것은 잠시 대야 밑바닥을 기다 말고 사뿐히 위로 떠올라 안개처럼 연하게 피어서 사방으로 번져 나갔다. 손가락 끝을 중심으로 하고 그 색의 농도가 점점 연해져 갔다. 맑게 개인 하늘색으로 대야 가장자리까지 번져나간 그것은 다시 중심의 손끝을 향해 접어들며 약간 진한 파랑색으로 달무리 모양 동그란 원을 그렸다. 피! 이전 분명히 피다! 12)

철호의 양심과는 달리 동생 영호의 타락한 모습을 살펴보면, 전쟁은 인간이 지녀야 할 근본적인 도덕까지 파탄시킴을 알 수 있다.

“네, 벗어 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

“너는. 너는 …….”

12) 이범선, 전계서, pp.215-216.

“그렇게만 살자면 이 형도 잘 살 수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 버리던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전드릴 때마다 감쪽감쪽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일론 팬츠 같은 것이죠. 입으나 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대한가지죠. 판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티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꿨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쫓단 패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 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 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흥”¹³⁾

여기에 나타난 철호와 영호의 대화에서 현실과 당위의 날카로운 갈등을 발견하게 된다. 영호의 주장처럼 ‘양심껏 살아가면서 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다. 거기에 비해서 그 시시한 것들을 벗어던지기만 하면 누구나 틀림없이 잘 살 수 있다’면 양심이니 윤리니 하는 것은 그들을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가시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가시’를 앓으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양심은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의 소리이며,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당신과 양심은 하나이다. 양심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전인격성과 일치시키고 있다. 그러나 니체나 야스퍼스는 양심은 사회의 산물이며, 따라서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적 억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배 집단에 의한 수세기에 걸친 군사적·법적·교육적·심리적 억압의 점진적 결과라는 것이다. 「오발탄」에서 철호의 입장이 전자의 것이라면, 영호의 입장은 후자의 것이다. 그런데 이범선 소설은 너무나 자주 후자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주인공들의 행동은 대개 전자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양심과 인간애, 그리고 순

13) 이범선, 전제서, pp.226-227.

진무구한 생명체의 꿈틀거림이 당시대 사람들의 방향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작가의 긍정적인 시각이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격렬한 항변(抗辯)의 양식(良識)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오발탄」에서 작가가 취급하고 있는 근본적인 주제는 양심과 윤리, 그리고 인간에 같은 인간가치와 이것에 반대되는 비인간적인 것과의 대립과 갈등을 통한 사회 비판이다.

“무력한 선의의 인간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억압하고 또 학대하는 사회와 주변의 상황에 대한 이범선의 고발과 항변과 소극적인 대결의식은 작품 「오발탄」에서 비교적 절기게 점철되어 있다.”¹⁴⁾

천승준의 지적대로 「오발탄」은 6·25라는 비극이 스치고 지나간 전후의 암담하고 우울한 사회를 철저히 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의 궁핍함과 타락상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의식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절호의 어머니가 병들고 미친 나머지 아래목에 누워서 부르짖는 “가자! 가자!”라는 절규는 물론 북쪽에 두고 온 고향, 지금은 갈 길이 없는 고향에 대한 강렬한 향수의 표현이다.

“호홉처럼 생리화해 버린” 미친 어머니의 “가자”라는 절규는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이 부르짖음은 시에 있어서 후렴귀와 같은, 음악에 있어서 주제적 리듬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것은 상실한 고향으로의 회귀 의지이며 통일에의 갈망이다. 동시에 운명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암담한 세계와의 갈등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한 비극적 인간의 자의식적 절규일 터이다.

송철호에게는 어머니가 가르킨 공산 지하의 고향에의 길도 동생이 달려간 범죄적인 길도 막혀 있다. 그가 앓던 이는 심리적으로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 및 노모의 향수와 동질의 것이어서 그 발치(拔薊)의 결과는 그 두 길이 마땅히 저지해야 할 죽음에의 길이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체포되어 감옥에 끌려가고, 난산의 아내는 병원에서 죽어가는데도, 동생의 돈을

14) 천승준, 전제서, p.185.

가지고 병원을 향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앓던 이를 몽땅 뽑아머리고 혼미한 의식속에서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들으며 택시를 탄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컷가에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폭 모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가 네거리에 다다랐다. 앞에 교통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¹⁵⁾

그러나 그건 이미 어머니의 소리가 아니다. <조물주의 오발탄>처럼 행방을 상실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부르짖음이다. 어디로 가긴 가야 하지만 그가 탄 차는 생명으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싣고 간다. 여기서 우리는 극한 상황에 부딪힌 인간의 뼈아픈 고통을 외면한 채, 사정없이 달려가는 현실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런 속에서도 사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사회에 대한 파괴적 행위('영호'의 경우), 또는 자기에 대한 파괴적 행위('철호'의 경우)로 드러나며, 이러한 행위는 또한 현실 상황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비극적 갈등의 모습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오발탄」에서 극한 상황의 설정은 주제를 강하게 노출시키는 의도로 해석되나 인물 설정, 사건 진행, 결말에서 리얼리티보다는 작위성(作爲性)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작품의 결함이라기보다는 6·25이후의 사회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가족의 구성원과 주위 배경들을 비극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전후 사회에서 궁핍한 생활을 통하여 기생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하층민들의 삶은 왜곡되어진 불안정한 삶의 혼적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생존의 수단으로 타인의 물품에 대한 절도 행위조차 불사하는 야수적 삶의 형태로 드러난다. 작중 인물의 이런 측면은 바로 굶주림의 억압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이웃에 유해한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다는 소르킨의 지적¹⁶⁾이 한국 전후 현실 속에서도 작용하고 있

15) 이범선, 전제서, p.245.

16) Pitirim, A. Sorokin, *Man and Society in Galamity*(Greenwood Press, 1973), p.66.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범선의 소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공들의 자의식으로 인하여 비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오발탄」의 주인공이 스스로를 조물주의 오발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무의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합리한 현실의 강압성 때문이지만, 그 상황 타개의 불가능을 언제나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IV. 결 론

지금까지 본고는 50년대 한국 문단의 대표적 작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범선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그의 문학세계를 소설 미학을 바탕으로 존재론적인 삶의 양식을 조명하는 서정적인 것과 비판을 앞세운 사회 고발적인 것의 두 계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범선의 작품 중에서 나타나는 서정적 경향은 감성이 감상주의(感傷主義)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일상적 얘기를 소재로 하여 간결하고 청아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서정적 단편 소설일지라도 그것이 소설인 한은 서사적 갈등 및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의 소설은 이것을 결여하고 있다. 다만 「학마을 사람들」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서정적 상징물인 학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한 마을의 파탄상이라는 서사적 갈등을 기반으로 해서 성립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소설 공간이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도 성공의 주요 요인이다.

한편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유래된 그의 작품에서 나타난 사회 고발적인 경향은 6·25를 통해 받은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사회 고발적인 경향은 비참한 사회의 한 단면만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비참한 절망의 상태에서 인간이 지닌 양심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발탄」을 단순히 사회 비판적 고발 소설로 볼 수 없다. 사회 비판 소설이라 하기에는 주인공의 태도가 너무 내향적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전면을 살펴볼 때 사회 비판의 기미를 포착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비판 소설에서 흔히 보이는 대안 제시도 없다. 다만 작가는 현실 적응에 실패한 인물들의 뒷전에 철호의 양심과 인간애, 그리고 순진무구한 생명체의 꿈틀거림을 남겨놓음으로써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여운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그 당시가 희망이 없고, 구체적인 대안을 두드러지게 제시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범선의 작품에 나타난 서정적인 경향과 사회 고발적인 경향의 두 계열은 나뉠대로의 특징과 함께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인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등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V. 참고 문헌

- 이범선 「이범선 대표중단편선집」 (책세상, 1994)
 김광식 <이범선 형의 영전에>, 현대문학, 1982.5
 김교선 <한국전후소설의 특징에 관한 고찰>, 「국어국문학17집」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75.12)
 김동리 <‘학마을 사람들’에 붙임>, 「학마을 사람들」 (오리문화사, 1958)
 김병욱 <삶의 인식과 성찰-이범선의 ‘흰까마귀의 수기’>, 현대문학, 1979.7.
 ——— <6·25와 전쟁문학>, 이대학보, 1982.10.
 김상홍 <이범선 소설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5)
 김 준 <전후시대의 상흔과 향수-이범선의 ‘오발탄’>, 「한국소설의 문제작」 (일념, 1985)
 김 현 <소시민의 한계>, 「한국단편문학대계(9)」 (삼성출판사, 1982)
 박동규 「현대소설의 성격연구」 (문학세계사, 1981)

- 백승철 <고발문학의 기념비적 정점>, 「오발탄」(삼중당, 1976)
- 백 철 <전후 15년의 한국소설>, 「한국전후문학작품집」(신구문화사, 1961)
- 석일균 <작가 이범선론-그 인간과 그 작품성 소고>, 한국외대논문집17, 1984.
-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7)
- 윤병로 「현대작가론」(선명문화사, 1974.5)
- 윤재근 <원형과 사상의 모순을-이범선론>, 현대문학, 1977.4.
- 이대근 「한국전쟁과 50년대의 자본축적」(까치문고, 1987)
- 이상원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안희 <이범선 소설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이어령 <문제성을 찾아서>, 「한국전후문제작품집」(신구문화사, 1961)
- 이용남 <서정과 고발의 미학> (국어국문학회, 1987)
- 이재선 <한국문학의 자아의식>, 이대학보, 1981.11.
- 이태동 <‘진리의 빛’과 실재적 신화의식- ‘조용한 아침’, ‘표구된 휴지’, ‘까치방’>, 문학과지성, 1978 가을호.
- 조동숙 <1950-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조병화 <서민의 목소리>, 현대문학, 1982.5.
- 진덕규외 「1950년대의 인식」(한길사, 1981)
- 차정자 <이범선 작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논문, 1983)
- 천승준 <서민의 미학>, 문학사상, 1980.2.
- 천이두 <오발탄의 행방>, 「현대한국문학전집」(신구문화사, 1971)
- _____ <시와 인정의 세계-갈매기>, 「현대한국문학전집」(신구문화사, 1971)
- 홍사중 <진실한 구신의 자세-피해자>, 「현대한국문학전집」(신구문화사, 1971)
- 황현식 <집단과 소극적 개인-이범선론>, 현대문학, 1980.2.
- 대담취체 <오발탄 그리고 피해자>, 문학사상, 1974.2.
- Alberes, R. M., *L'Histoires du Roman Moderne*, 민희식 역(정음사, 1982)
- Bollnow, O. F., *Existenzphilosophie* (W. Kohlhammer Verlag Stuttgart, 1955)

- Freeman, David H., 편집, *Nietzsche, Sartre, Freud, Kierkegaard from the Modern Ideology Series*, 이창우 역(중로서적, 1988)
- Girard, Rene,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김운식 역, 「소설의 이론」 (삼영사, 1986)
- Lanser, S. S., *The Narrative Act-point of view in prose fic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May, Charles E., *Short Story Theories*, 최상규 역(정음사, 1990)
- Short, M/Leech, G., *Style in Fiction* (New York, 1981)
- Sorokin, P. A., *Man and Society in Galamity* (Greenwood Press, 1973)
- Stanley, Rosen, *Nihilism* (Yale University, 1969)
- Steiger, E., *Grundbegriffe der Poetik*, 이유영, 오현일 역 (삼중당, 1987)
- Strelka, Joseph, P., *Leterary Criticism and Philosoph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83)
- Stevick, P., *The Theory of the Novel* (New York, 1967)

Abstract

Lyricism and The esthetics of accuse
- The study of Lee Beom-Son

Bae Gyung-Yul

There were many changes in political, an economical, a social and a civilized aspect in 1950's because the Korean war brought about a great deal of slaughter and ruin. As we see in the Korean literature, many famous writers were killed and missing. Fresh novelists came into being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They who had been experienced in the war described human inner experiences in the novel. Therefore, they made their own novel, what is called, "Postwar Literature."

In Lee, beom-son's novel, the writer described lyricism and the condition of material damages caused by the war. He also showed that the pain and homesickness of refugee who were rootless in his novel. First of all, the writer was much interested in damaged neighbors.

He showed us that anti war idea and anti communist under postwar and his characters wandered between life and death in his novel. From the point of humanity he expressed neighbors who were to make another attempt in his novel. As a soldier in the Korean army, he experienced communist's cruelty in the war and the sadness of the war. Thus, he was to be trained the objective view about the reality as a reporter.

Based on Lee, beom-son's novels were a negative attitude about the value of human life ; others of the novels were a positive attitude about it, and still others of the novels were treated as the matters of human real lif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deology. In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in 1950's novels we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stwar.